추석 연휴 TV 안방극장

사흘간의 추석연휴,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하려면 더욱 짧게만 느껴진다. 영화관 가는 시간조차 내기 어렵다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TV영화를 즐겨보자. 올 초 극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최신 영화를 비롯해 코미디, 액션, 드라마, 멜로 등 다양한 영화들이 시청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찾아보고, 골라보고 한번 더 봐도 재밌네

◇놓쳤던 신작·흥행작

올 상반기 관객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던 한국 영화 7편 중 3편을 만나 볼 수 있다. '원스 어폰 어 타임'은 박용우, 이보영 주연의 액션 코미디로 1940년 신문물이 쏟아져나오는 변혁의 시기에 무정부주의자들이 벌이는 좌충우돌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래된 커플의 연애담을 그린 김하늘, 윤계상 주연의 영화 '6년째 연애중'과 거대 소매치기 조직의 이야기를 담은 손예진, 김명민 주연의 '무방비도시'도 안방을 찾는다. 극장에서 놓쳤던 영화들이라면 챙겨 볼만하다.

2006년 추석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허영만 신드롬의 포문을 연 조승우, 김혜수 주연의 '타짜'와 최근 TV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식객'이 올 추석 TV 영화계를 노크한다.

전문 도박꾼의 세계를 그려 지난 2006년 68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타짜'는 오는 16일부터 드라마 '타짜'로 선보여질 예정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지난해 개봉해 300만 관객을 불러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 '식객'도 월화드라마 '식객'의 인기에 힘입어 방영된다.

◇화끈한 액션물 풍성

액션영화 '미션 임파서블3'는 유럽을 오가며 벌이는 대규모 스타일의 액션씬과 톰 크루즈의 매력이 볼거리다.

결혼을 앞둔 권상우의 앳된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는 유하 감독의 학원액션물 '말죽거리 잔혹사'도 눈길을 끈다.

TV로 즐기기엔 아쉬움이 남지만 설명이 필요없는 대작들도 준비됐다. 조니 뎁의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 크리스천 베일의 '배트맨 비긴즈', 키아누 리브스의 '매트릭스 2'가 안방극장을 찾아온다. 한편 배트맨의 탄생 배경을 그린 '배트맨 비긴즈'는 최근 극장가를 강타하고 있는 '다크나이트'의 전편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명절엔 역시 코미디

명절에 빠지면 허전한 조폭 코미디 영화 '상사부일체'가 방송된다. 정준호·정웅인·정운택 콤비가 흥행을 합작했던 전작 '두사부일체'와 '투사부일체'를 잇는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다.

기세 등등한 할머니들이 벌이는 좌충우돌 코미디 '마파도2'도 함께 편성돼 경쟁을 벌인다.

잘나가는 중견배우 중 하나인 나문희가 주연을 맡은 '권순분 여사 납치 사건'은 이미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권순분 여사가 자식들에게 돈을 다시 받아내기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개봉 당시 별다른 빛을 보지 못했던 영화를 곱씹을 수도 있다. 미처 극장에서 보지 못했던 봉태규·정려원의 로맨틱 코미디 '두 얼굴의 여친', 차승원·유해진의 콤비 코미디 '이장과 군수'를 보며 웃는 것도 좋다.

김사랑의 매력이 돋보이는 섹시 코미디 '누가 그녀와 잤을까'도 시청자들을 유혹한다.

'바르게 살자'는 경찰관이 모의 훈련에서 은행강도 역할을 맡으며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작품이다.

◇알려지지 않은 '완소' 작품들

이준익 감독이 그린 중년 밴드의 휴먼 드라마 '즐거운 인생'을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것도 좋다.

'뮌헨'은 할리우드를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올림픽을 소재로 만든 영화. 11명의 이스라엘 선수들이 팔레스타인 테러집단 '검은 9월단'에 의해 살해당한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을 다뤘다.

아일랜드산 인디 음악 영화 '원스'는 국내에서 관객 10만 명을 돌파하며 '대박'을 낸 작품이다. 저예산 영화로 두 남녀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그린 작품이다.

'아스라이'는 인디포럼 2007 폐막작으로 영화 제작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20대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2007년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작인 '투야의 결혼식'은 우물을 파다 불구가 된 남편이 두 아이와 함께 힘겹게 살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2006년 중국 왕취엔안 감독이 만든 이 작품은 내몽골에서 여전히 유목민의 삶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12일 (금)		
미션임파서블3	밤 9시 40분	MBC
즐거운 인생	밤 11시 5분	SBS
캥거루 잭	오후 2시 10분	SBS
아주르와 아스마르	오후 4시 20분	KBS2
13일 (토)		
뮌헨	새벽 0시 15분	KBS2
207가의 디귿자 아파트	새벽 1시 35분	KBS1
러시아워 3	오전 11시 20분	SBS
원스 어폰 어 타임	밤 10시 5분	KBS2
바르게 살자	밤 11시 20분	SBS
투야의 결혼	밤 11시 25분	EBS
14일 (일)		
캐리비안의 해적-망자의 함	새벽 0시 25분	MBC
아스라이	새벽 0시 50분	KBS1
배트맨 비긴즈	새벽 1시 10분	SBS
타짜	오전 10시 50분	KBS2
무방비 도시	저녁 9시 35분	MBC
마파도 2	밤 11시 20분	SBS
6년째 연애중	밤 11시 25분	KBS2
원스	밤 11시 25분	EBS
상사부일체	밤 11시 40분	MBC
말할 수 없는 비밀	밤 11시 40분	KBS1
15일 (월)		
매트릭스 2-리로디드	새벽 1시 20분	SBS
두 얼굴의 여친	오전 9시 40분	MBC
천년 여우 여우비	오전 10시	EBS
이장과 군수	오전 10시 30분	SBS
권순분 여사 납치사건	밤 9시 40분	KBS2
식객	밤 9시 45분	SBS

미드·애니메이션·액션은 케이블 채널서

지상파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케이블·위성 채널들이 추석 연휴 동안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인기 '미드'(미국드라마)와 액션, 애니메이션 등 풍성하다.

영화채널 OCN은 12~14일 낮 12시부터 12시간 동안 'CSI' 시리즈를 방송한다. CSI 뉴욕 4(12일), CSI 마이애미(13일), CSI 라스베가스 시즌 8(14일)이 각각 연속방송된다.

XTM은 14일 낮 12시부터 로스트 시즌 4 를 15시간 연속으로 방송하고, 채널CGV에서는 TV 시리즈 터미네이터 2.5를 13~15일까지 사흘 동안 하루 세 편씩 낮 12시부터 보여준다.

액션채널 수퍼액션은 13일 오전 6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67시간 동안 액션영화 29편을 연속방송하는 '얼티미트 액션'특집을 준비했다.

해리포터와 불의 잔(13일 오후 1시30분), 플라이트 플랜(14일 오후 3시30분), 미스터&미세스 스미스(14일 오후 5시30분), 미이라 2(14일 밤 10시) 등이 차례로 전파를 탄다. 또 13구역(13일 새벽 3시30분), 킹콩(15일 오전 11시), 블레이드 3(15일 오후 2시30분), V 포 벤테타(15일 새벽 1시) 등이 방송된다.

스타일채널 온 스타일은 15일 낮 12시30분부터 키이라 나이틀리 주연의 '오만과 편견'과 영국의 4부작 TV시리즈 '오만과 편견 다시 쓰기'를 6시간 연속 방송하는 '제인 오스틴 특집'을 준비했다.

애니메이션 채널 투니버스는 14일 애니메이션 특집을 편성,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9편을 선보인다. 3D 뮤지컬 애니메이션 '바비의 라푼젤'(오전 9시),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오전 10시30분), 3D 애니메이션 '로봇'(밤 10시)이 시청자를 등을 보여준다. 이밖에 추리 애니메이션으로 명탐정 코난 극장판-14번째 표적(오후 4시부터), 명탐정 코난 극장판-눈동자 속의 암살자 등이 차례로 방송된다. 이밖에 챔프는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15일 오전 7시)을 방영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미션임파서블3

즐거운 인생

뮌헨

러시아워 3

원스 어폰 어 타임

바르게 살자

캐리비안의 해적-망자의 함

배트맨 비긴즈

타짜

무방비 도시

마파도 2

6년째 연애중

원스

상사부일체

매트릭스 2-리로디드

이장과 군수

권순분 여사 납치사건

식객